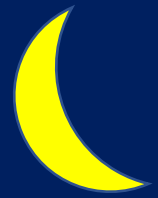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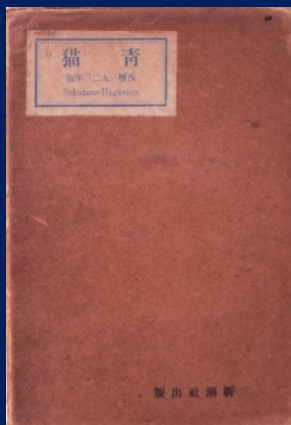
## “우울한 고양이”



“우울한 고양이”(신초샤)는 1923년에 간행된 사쿠타로의 두 번째 시집입니다. “달에게 짓다”와 공통되는 고독함과 더불어 ‘우울’이 시집의 중요한 키워드입니다.

“달에게 짓다” 이후 “우울한 고양이”를 내기까지 사쿠타로는 고향인 마에바시에서 지냈습니다. 이 기간을 사쿠타로는 ‘음울한 장마기’로, 무기력한 생활 가운데 철학서를 탐독하고 삶의 의미에 대해 생각했다고 말했습니다(‘우울한 고양이를 썼을 무렵’). 특히 1915년 봄부터 1년 동안은 시도 발표하지 않고 문단 동료들과 교류도 하지 않았습니 다. 사쿠타로는 1919년에 결혼했는데, 그 후에도 이러한 생활은 계속되었습니다. “우울한 고양이”의 시에 쓰인 풍경에는 이러한 사쿠타로의 ‘우울’이 투영되어 있습니다.

시의 표현에서는 동물의 울음소리 등에 의성어를 많이 사용하여 독자적인 어감을 만들어 냈습니다.



“우울한 고양이”(1923 신초샤)